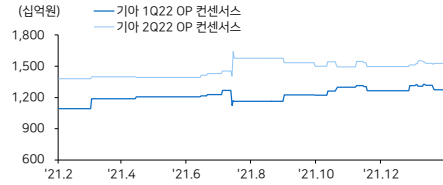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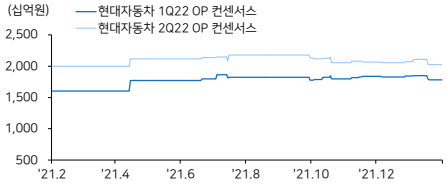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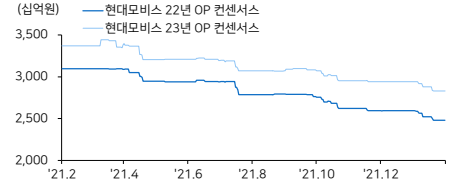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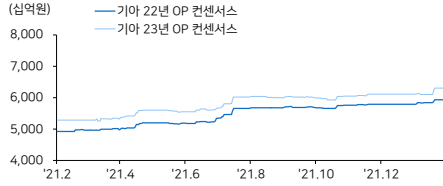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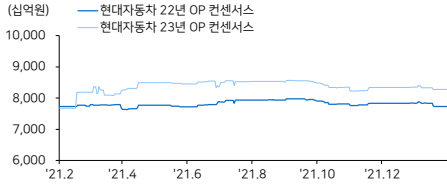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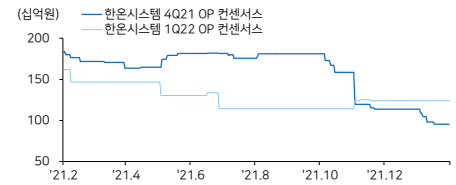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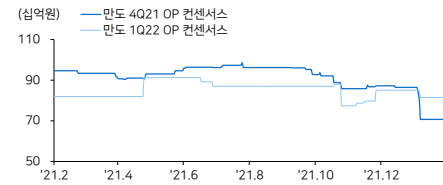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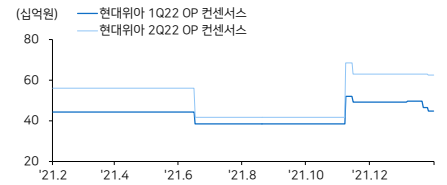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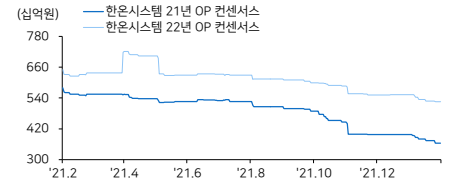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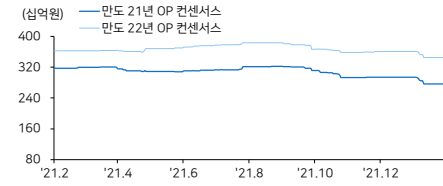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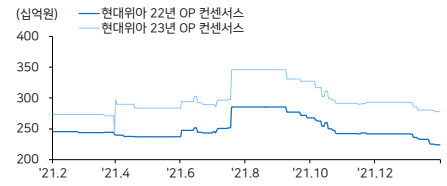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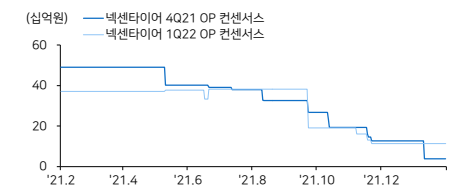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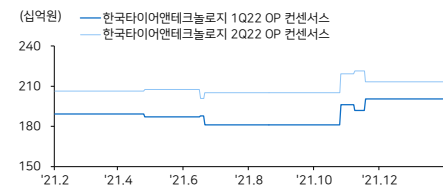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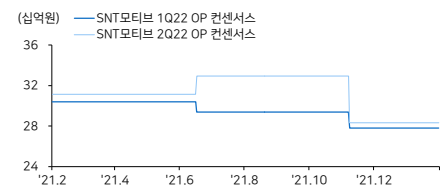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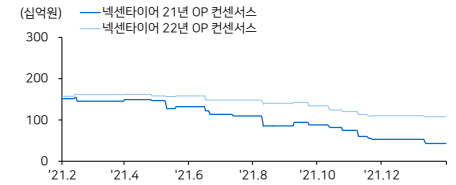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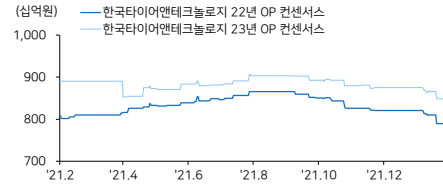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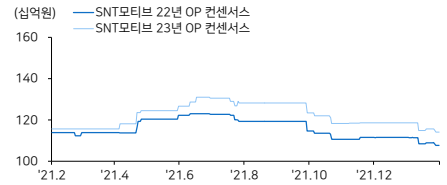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미 리콜 대상 차종 국내에서도 곧 리콜 (전자신문)

앞서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약 48만5000대 규모의 리콜을 진행한다고 발표함. 대상 차종은 쉐타페, 투싼, 스포티지, 기아 K9 등. 해당 차종에 대해 국내에서도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일정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bit.ly/3B91xer>

이론차의 땅 동남아, 전기차의 전경지로 (조선일보)

폭스콘은 태국에 연간 5만대 이상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 벤츠는 태국 공장 설비 교체와 마지코 전기차(EQS) 생산을 시작함. 현대차의 인도 공장도 3월부터 아이오닉5 생산을 시작할 예정. 동남아 시장으로의 전기차 기업 진출이 빨라지는 중.
<https://bit.ly/3rFleX6>

Strong U.S. wholesale inventories point to upward fourth quarter GDP growth revision (Reuters)

미국 자동차 소매 재고가 12월 추정치를 소폭 상회한 4.6%를 기록, 공급망 제약 완화 조짐을 제시함. 이에 따라 미국 GDP 성장률 역시 기존보다 높게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러나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지속 여부는 미지수.
<https://reut.rs/3GIQc5Q>

Honda posts 17% fall in Q3 operating profit but raises full-year view (Reuters)

혼다는 칩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이 위축되며 4Q21 영업이익이 -17% 감소한 19.8억 달러를 기록. 그러나 향후 비용 절감과 엔화 약세로 연간 영업이익의 전망을 소폭 상향한 8000억 엔으로 조정함.
<https://reut.rs/3B88tbtL>

후반도체 공급난에 올해도 출고 지연 지속...친환경차 대기 더 길어 (연합뉴스)

제네시스 G70, G80, GV70, GV80은 계약부터 인도까지 3~6개월 가량 소요, G90은 9개월 이상 소요됨. 기아 주력모델인 스포티지, 쏘렌토 등은 출고까지 11~12개월로 1월과 비교해 더 길어짐. 친환경차 대기기간은 더 긴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Lp1Fek>

명신산업, 미 스타트업 패러데이퓨처와 전기차 생산 협력 (글로벌이코노믹)

한국의 전기차 생산기업 명신이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패러데이퓨처(Faraday Future)와 FF81 양산형 전기차 생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함. '24년 양산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며, 패러데이퓨처는 3Q22 FF 91 모델을 출시 예정.
<https://bit.ly/3st4yIU>

BMW barely squeaked past challenger Tesla in 2021 US luxury registrations (Auto News)

Experian의 미국차량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BMW가 347,453대(yoy 24%), Tesla가 432,412대(yoy 71%)를 등록하여 경쟁을 펼침. 이들은 이미 렉서스와 벤츠를 제치고 각각 1, 2위에 올라섬.
<https://bit.ly/3uTCUkX>

Bosch CEO expects chip shortage to ease, hopes for return to normal by 2023 (Reuters)

보시 CEO 스테판 하르통은 수요일 기저화면에서 반도체 부족이 2H22에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23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임. 보시는 올해 유럽에서 2019년(9,200만대)에 못 미치는 8,500만대 생산을 전망함.
<https://reut.rs/34v2Yla>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